

신호 대기 중 자동변속기 기어레버 위치는 N? 혹은 D?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하는 경우 기어레버를 D(주행)에 두어야 할까? N(중립)에 두어야 할까? 신호 대기 중 N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D에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삼성화재다이렉트(<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sfdirect>)가 상황에 따른 기어레버 사용법을 안내했다.



변속레버에 보이지 않는다면 버튼형으로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핸들에 패들 시프트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다. 모두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D 단에 둔 상태에서 + 혹은 -를 조작해 수동변속기처럼 원하는 단수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수동모드로 들어갈 경우 자기가 어느 단수에서 운전하는지는 보통은 자동차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동기어 모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 자동변속기의 L, 혹은 1, 2는 언제 사용할까? 어떤 자동변속기에는 L 혹은 1, 2로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전 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L은 Low의 약어이며 수동변속기 1단과 동일하다. 숫자로 1로 적혀있는 경우도 같다. 2는 수동변속기 2단과 동일하다. 이를 이용해 저단 기어로 주행이 가능하다.

L이나 숫자에 변속레버를 옮겨 놓으면 수동변속기와 같이 일정한 속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 수동변속기 (L) 1단은 0~2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 수동변속기 2단은 20~4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다.



L, 2단은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활용하면 좋다. 특히 내리막에서는 D로 주행할 경우 속도에 의해 풋 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과열되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되지 않는 '페이드 현상' 이 발생하고 심하면 유압 계통이 과열되는 '베이퍼 록 현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저단 기어로 바꿔 내려갈 경우 저속으로 전환되어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내려갈 수 있다. 운전자는 속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풋브레이크를 적게 이용하게 되어 브레이크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오르막에서 역시 저단 기어로 바꾸고 주행할 경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바चा고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에 L이나 숫자로 표기된 저단 기어는 보기 힘들다.

사진=shutterstock

■ N에 두면 좋은 경우

▶ 3-5분 정도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도로 위 정체가 심하거나, 신호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면 연비를 고려해 N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정차 시간이 길고 대기열 맨 앞에서 있지 않을 때 기어를 변경하고 즉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출발이 가능하다면 N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D에 두면 좋은 경우

▶ 1-3분 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을 경우엔 N으로 변경에도 연비에 영향은 그리 높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 내구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 신호 변경 시 바로 출발해야 할 때 앞 줄에 서 있어 앞서 빠른 출발을 해야한다면 D로 유지하는 것이 기어의 부담을 줄여 도움이 된다.

▶ 오르막에서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자동변속기에 +, - 를 수동변속기처럼 사용하는 방법
변속레버에 + 혹은 -로 표시된 차량이 많다. 만약

▶ 저단기어를 사용하기 좋을 때

● 오르막길 - 저단 기어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해 힘차게 오르막 주행이 가능하다.

● 내리막길 - 저단 기어로 브레이크 사용을 최소화하여, 엔진브레이크를 걸며 내리막 주행이 가능하다.

● 빗길, 눈길 - 출발 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자 저단 기어로 전환하고 출발하면 더욱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고, 멈출 때 역시 풋브레이크로 인한 미끄러짐을 방지하며 감속할 수 있다.



▶ 고단기어를 사용하기 좋을 때

빠른 속도로 달릴 때 - 고단 기어로 전환해 낮은 RPM으로 주행하면 연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래피 갤러리

—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